

광산구, 시민마음건강 밀착 지원 눈길

온라인 상담 '광산 ON톡' 1년간 1만여명 이용 '1대1' 관리

광주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적극적인 심리 안정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시민의 마음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시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중인 비대면 온라인 정신건강상담창구인 '광산 ON(온)톡'은 지난 10월까지 1년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상담했다. 하루 평균 20~30건의 상담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극심한 후유 정신 장애와 우울감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청년 A씨도 이곳에 고민 글을 올려 도움을 받았다.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A씨의 사연을 접한 직후 상담에 나서 정신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했다. 낯선 상담이 어려운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야간에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삶의 의지를 되찾고, 사회복지사의 꿈을 꾸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먼저 괜찮다고 물어보고 손을 내밀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돼 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마음을 전했다.

광산구는 A씨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 활동 위축,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특정한 심리 안정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함께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산ON톡'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 체계도 강화했다. 마음 고민을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정신건강 전문가가 맞춤형 처방으로 심리 안정을 지원한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과 합동으로 응급 개입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 시민이 도로에서 자해 위험성을 보이자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진정시키고, 치료를 연계했다.

정신건강센터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이 안정을 되찾은 이후에도 1대1 밀착관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완전한 일상으로의 복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사례관리와 더불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강좌와 교육 등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장기간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우울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마음 건강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에서 광산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수가 19.3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임직원들이 최근 지역 내 한 아파트 입구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민관 협력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단은 지난 19일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다. 개선 사업에는 바람꽃주거환경개선봉사단, 광주환경공단,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신흥동 통장단 등 6개 기관 및 단체, 30명이 참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행복광산 북스토리' 27일 장덕도서관 일일

광주 광산구는 27일 장덕도서관 일원에서 제1회 광산구 책 축제 '행복광산 북스토리'를 개최한다.

광산구 구립도서관, 사립작은도서관, 그림책 협회와 공동으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첫 행사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맞아 책 읽는 가치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인다.

지구를 지키는 소원팔찌, 그림책으로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전통놀이 등 체험마당, 사회적관계망서비스 응모작과 독후화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만날 수 있는 전시마당, 중고도서를 교환하는 나눔마당이 운영된다. 또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 체험의 기회도 제공하고, 인

공기능(AI) 사서, 독서로봇, 그림책 AR 체험존, 시, 소설 등 1500편의 문학작품 글귀를 출력할 수 있는 '문학 자판기' 등도 만날 수 있다.

행사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 백신접종자, PCR검사 음성 확인자(48시간 이내) 등을 대상으로 500명까지 입장이 허용한다.

앞서 24일에는 사전행사로 '메타버스 타고 작가 만나러 가자'를 진행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플랜드(ifland)'에서 메타버스 전문가인 김상균 강원대학교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을 수 있다. 책 축제 및 사전 강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은 광산구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사회보장급여정보 안내문 발송

복지사각지대 고위험 1인 가구 대상...맞춤 복지 연계

광주 광산구가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정보 안내 홍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관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사회, 경제적 고립 등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고위험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절하지 않는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정보가 담긴 안내 홍보문을 집으로 보내 상담, 복지욕구 수요조사 등을 거쳐 대상 시민이 마땅히 받아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가계진급생계비를 지급 받은 만 50세~64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 1인 가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추정되는 1인 9454가구를 발굴했다.

현재까지 8000여 가구에 홍보문이 전달돼 1154가구가 상담을 받았고, 334가구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 대상자가 아닌 시민에 대해 긴급복지를 제공한 것은 38건, 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한 것은 29건이다.

"편지" 한 통으로 은둔형 위험가구를 복지 안전망으로 끌어내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1만여 가구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마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일을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까지가 전해주는 진정한 편지"라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보와 희망 가득한 행복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1인 가구 증가와 초고령화에 맞춰 은둔형 고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없는 광산을 실현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로 시민의 존엄성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일반직노조와 임단협 체결

광주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은 "지난 19일 환경직, 일반직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신선호 이사장과 환경직 교섭대표노동조합 오준표 위원장, 일반직노동조합 심진희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노사 위원들이 참석했다.

협약과 관련 공단과 노동조합은 환경직 총 25회, 일반직 총 9회의 실무교섭회의를 거쳐 노사 쌍방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7월 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이관 이래 6년간 난제로 남아 있던 환경직 직원의 급여 누진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신선호 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노사 간 상호존중을 원칙으로 공단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준표 환경직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과 심진희 일반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비아동 아동지원 민관 협력네트워크 '도전! 독서 골든벨' 성료



광주 광산구 비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비아동 아동지원 민관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제1회 도전! 비아 독서 골든벨'을 개최했다. <사진>

마을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전한 독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비아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사전에 지정된 도서와 관련해 많은 답을 맞힌 아동에게 상패 등을 수여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내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축하 공연을 진행하며 아이와 어른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황관중 비아동 지사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독서 골든벨이 비아 마을을 대표하는 행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